



팔공산 파계사



◀산허리에 탑을 쌓듯 전각을 얹은 파계사. 알뜰한 공간 활용으로 안정감과 상동감을 동시에 얻고 있다.

◀파계사의 금당인 원통전. 어간 문 아래의 꽃문양, 소박함과 화려함을 함께 담은 줄 아는 바림한 방범을 느낄 수 있다.



【승사의 얼굴】 고송스님

“날 보지 말고 자네 데리고 온 놈을 봐”

“어디서든 오셨나. 이 높은 뽕종아리 봐서 뭘 하려고 날 보지 말고 이곳까지 자네를 데리고 온 놈을 봐.”
세수 이흔 일곱. 조계종 원로 스님 중 최고령이신 고송(古松) 스님. 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어른을 만난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파계사에서 우렁찬 한 그루 소나무를 만났다.

“잃어버린 가을을 찾습니다.”

실종 신고라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물들지 않은 나뭇잎들도 이른 추위에 놀라 아직 푸른 몸통이를 황급히 내려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형편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라 동학갑이 두꺼운 옷으로 몸 숨기기 바깥입니다.
자연이 어찌 시속을 따르겠습니까. 중간은 실종되고 양극단으로만 치달는 세간의 모습을 닮은 것 같아 씁스레합니다. 내 발고 나니 망발이 돼 버렸습니다. 인간사의 뒤를림을 자연에 빚달 수는 없겠지요. 옛 어른의 말씀은 회초리 삼아 켜니다.

한 스님이 운문(雲門, 864-949)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나뭇잎이 시들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운문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양상한 모습 드러내니 가을 바람만 가득 하지(體露金風)”

“체로금풍(體露金風) 가을 바람에 일탈군 나무의 적나라한 몸통.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이룹니다.
가을결이 끝난 들판을 느긋하게 밀어내며 파계사로 향합니다. 팔공산 서쪽 자락을 헤치니 골장 파계사 일주문이 나타납니다.

양상한 모습 드러내니 가을 바람만 가득하지

여는 사람과 달리 파계사(肥溪寺)는 그 이름의 의미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라면 ‘계곡(溪)을 잡는다(肥)’는 뜻일 텐데, 그래도 생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력인즉, 파계사의 좌우에는 9개의 계곡이 있는데 그것들은 9마리의 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9마리 용이 한꺼번에 나와 세상을 어지럽힐까 봐 그것을 잡고 있다는 얘깁니다. 터의 기운이 세면 섰 대로, 또 약하면 약한 대로 살려서 쓸 줄 아는 절터 잡기의 지혜입니다.

파계사의 절내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진동루(震動樓)를 거쳐야 합니다. 우뚝 선 신장처럼 위엄 넘치는 모습인데, 이 누각의 이름 또한 ‘골짜기의 지기를 누른다(鎮脚)’는 뜻이니, 기가 세간 섰 고인 모양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한 마디 더 보태면, 가야산의 호랑이로 불린 성룡 스님도 1960년대에 파계사의 신내 암자인 ‘성전암’에서 외부와 인연을 끊고 득거하였다고 합니다.

진동루를 돌아오르면 좌우로 설선당과 적묵당을 두고 원통전과 마주하게 됩니다. 파계사의 금당인 원통전 결구로는 기영각, 산령각, 응향각이 둘러싸듯 앉아 있습니다. 이에 속중이 스님에게 원자(元子)를 얻을 수 있도록 배일 기도를 부탁하여 한 생명이 태

니다. 좁은 공간에 안정감을 주면서도 상동감을 잃지 않고, 독립성을 지니면서도 일체감을 얻는 가람 배치,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사찰 건축의 미학입니다.

파계사의 창건 연대는 정확히 밝혀진 바 없습니다. 다만 1936년에 세워진 사찰비를 근거로 신라 예장왕 5년(804)에 삼지(三智) 왕사가 창건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의 흥미진진한 지난 날을 말해주는 애

건물마다 독립성 지니면서도 일체감

현응스님-영조임금 ‘주고받기’로 상생

기는 중창조인 현응(玄應) 스님과 속중 그리고 영조와 얽힌 이야기입니다. 사적기에 있는 내용을 간략히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유년(1693) 시월 초닷새 밤에 속중은 한 스님이 대궐로 들어오다 자취를 감추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상서로운 빛이 대궐을 비추자 그 빛이 솟아나는 곳을 찾으니 영원 스님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속중이 스님에게 원자(元子)를 얻을 수 있도록 배일 기도를 부탁하여 한 생명이 태



어났고, 스님에게 현응(玄應)이라는 호를 내리고 내탕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중에 내려오는 얘기는 이보다 좀더 구체적인데, 그때 농산(農山) 스님과 함께 기도를 올렸고 그 스님이 환생하여 속중의 원자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어땠거나

한 당과 싸움이 벌어지면 패리는 사실입니다. 이때 현응 스님과 영조는 절묘한 ‘주고받기’를 시도합니다. 스님은 영조의 어의를 모심으로써 유생들의 횡포를 막고(절 앞의 ‘하마비’가 그것을 증명한다) 영조는 상생의 지혜를 얻습니다. 다 알다시피 영조는 강력한 방명력을 구사함으로써 빛나는 업적을 남긴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83살이나 살며 가장 긴 재위 기간(42년)을 누렸습니다.

불리한 지형을 슬기롭게 쓸 줄 아는 안목과 정치적 탄압을 절묘한 훈수로 극복한 파계사의 지난 역사는, 오늘날 한국 불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이런 내력을 알고 보니 원통전의 관음보살님은 그저 금을 입고 앉은 나무 조각이 아님을 알겠습다. 조형적으로도 현대의 불도들이 즐겨 모작할 정도로 빼어났습다. 기시는 걸음이 있으시면 꼭 눈맞춤 하십시오.

사람은 두터운 옷을 꺼입고, 나무는 옷을 벗는 계절입니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mahamail.co.kr

희潭石 의담석

“스님!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부처님의 가마를 간직한 생명의 돌 - 희담석”

희담석의 유일한 생체 에너지 파장에 의한 세포 활성화 능력을 갖춘 희담석 돌침대 및 돌보좌가 출시된 지 불과 몇 개월만에 열기가 회복되고 지병이 호전되었다는 놀라운 체험 사례가 계속 담지되고 있습니다.
* 스님용 돌보좌 및 다양한 디자인의 희담석 용품(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희담석 돌침대 체험사례〉

두 아이의 엄마인데, 체중이 37kg에 불과하며 매일 아침 죽으로 연명하는 처지로서 지난 3년간 살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희담석 돌보좌)에서 수면을 취한 후부터 덩어리 변을 보기 시작했고, 희담석 돌보좌에서 자고 난 다음날은 눈에 띄게 열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문순 (여/36세, 노원구 상계동)

직업상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심한 어깨 통증을 느껴온 적이 있었으며, 그럴 때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런데(희담석 돌침대)에서 생활한 후 이상하게도 어깨는 이따도 일을 계속할 때는 별 자장이 없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다. 지금은 아주 힘들게 일을 했을 때 다소 통증을 느껴지만(희담석 돌침대)에서 자고 난 다음날은 늘 거뜰하다. 김현수 (남/55세, 송파구 마천동)

산후통으로 인해 날씨가 갓기만 하면, 새벽, 낮에 손가락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아팠었다. 통다는 한약도 많이 먹었으나, 먹을 때 그때만 다시금 아팠는데(희담석 돌침대)에서 자고부터는 통증이 사라졌다. 박연숙 (여/41세, 서초구 서초동)

한 달에 다섯 번 열매가 숙고 팔꿈치 뒷부분이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프던 지병때문에 지난 10년간 풀리는 편적외선 치료기, 각종 예트 등을 사용해 왔으나 일시적인 효과뿐이었다. 그런데 우연히(희담석 돌침대)를 알게 되어 허뭇뭇 자고 나니 온 몸이 푸근하고 편안했다. 보름 정도 지고 나니, 10년 동안 느껴오던 그러한 통증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이제 사용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그렇게 극심했던 통증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내 통증을 잘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도 매우 놀라워했다. 김승업 (여/66세, 강북구 미아동)

제품문의(마하물)

(02)732-1520

마하물이 추천하는 신상품

“보살님! 자녀의 성적 향상을 원하십니까?”

“생명의 돌, 희담석에는 부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수험생이나 스님 등 공부하시는 분들께 희담석의 조건은 순간의 집중력과 그것을 얼마나 장시간 동안 유지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희담 방식은 신체를 정화시키는 강력한 에너지 파장으로 머리를 맑게 하여 집중력을 높이고, 몸을 편안하게 이끌고 순간순간 회복력을 높여 주어 장시간의 공부도 가능하게 합니다. 아래의 체험 사례들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희담석 방식 체험사례〉

여고 1학년인 내 딸은 평소 책상에 앉아 밤 12시 넘기기를 힘겨워 했으며 그나마 즐기 일주였다. 또한 아침에는 늘 깨우는 전쟁을 치러야 했다. 지난 추석 우연히(희담석 방식)을 알게 되어 딸 아이의 의지에 같이 놓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중간고사를 준비한다며 딸 아이는 새벽 3시~4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도 졸기는커녕 집중을 잘 하는 듯 보였고 더군다나 밤 늦도록 공부했음에도 아침에 힘들지 않고 잘 일어났다. 평소 자기만 32명중 27등 정도였던 딸아이의 성적은(희담석 방식)을 사용한 후 10등으로 올라갔고, 암기 과목을 어려워 했는데 암기 과목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월등히 높아졌다. 나와 딸애는 물론 선생님과 친구들까지도 매우 놀라워했다. 김영희 (41/여, 수험생 어머니, 부천 중동)

나는 힘이 들어서 오랫동안 운전할 수 없었다. 그런데 운전석 시트에(희담석 방식)을 깔고부터는 장거리 운전을 해도 힘이 들지 않았다. 단지 방식으로 사용한 것인데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구나 희담석의 효능은 참으로 탁월한 것 같다. 원봉 스님(경남, 금보사)

작시를 하거나 혹은 경서를 보기 위해 오랫동안 책상 앞에 있다보니 고질적인 치질로 인하여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 우연히(희담석 방식)을 소개받아 사용했는데, 그 놀라운 효능을 곧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오랫동안 작시를 해도 편안하고, 장시간 책을 보아도 맑은 정신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좋다. 경안 스님(전남, 덕후사)



과음을 한 날 밤, 배에(희담 방식)를 돌려 놓고 자면 다음날 숙취가 현저히 줄어 들었다. 과음한 다음날 허리 뒤 통증이 시큰거리기에 30분 정도(희담 지킴이)를 벨트에 끼워, 한부대 대고 고정시켰더니 시큰거리고 배근했던 통증이 사라졌다. 이명수 (남/35세, 서울 원서동)

* 권장소비자가
● 해당 인터넷, 상주

제조원
(주)자원넷
JAWONET CO., LTD.